

광주시 대규모 국책사업 잇따라 수주

‘치매환자 관리기술 개발’ 미래부 과제 선정...50억 확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구축 대학과 ICT·의료 융합 연구

광주시의 ‘치매환자 관리기술 개발 및 시범 서비스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뇌과학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뽑혔다.

지난 5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사업(미래부, 국비 95억원)과 에어가전육성사업(산업부, 국비 100억원)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

으로 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비용 치매관리 원천 및 융복합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치매관리 통합 플랫폼 상용화 기술개발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 솔루션 개발로 미래형 치매관리 ICT·의료 융합서비스산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조선태 치매국책사업단, 전남대병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이 치매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경쟁 도시의 사업보다 비교우위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ICT·의료 융합서비스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6년 4월)에 따르면, 해마다 환자수

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명 가운데 2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가 327만원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뿐만 아니라 5대 만성질환에 비해 발병 인원과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남구 노대동 일원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립제2요양병원 등으로 집적화 돼 있는 국내 최고 노인 헬스케어 기반과 2014년부터 조선태 주관으로 추진 중인 치매조기진단시스템(국비 포함 80억5000만원)사업과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복지 위주의 기능을 담당해온 고령친화체험관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 바 있는데, 이는 산업과 복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기존 고령친화제품전시 및 체험 기능은 물론,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417억원(국비 350억원)을 투입해 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과 공동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호남권연구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노화연구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사업과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퇴직 고령인구를 타깃으로 시의 강점인 교육, 헬스케어, 의료, ICT, 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국 최고의 고령친화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외주용역 없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주목

전원 직접고용...안전관리·서비스 향상 효과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안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모범적인 안전관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기존에 외주용역으로 처리해오던 현장업무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 책임 있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정비, 시설관리, 역무 등 외주용역 근로자 326명을 공사 직원신분으로 전환해 임금상승과 고용안정 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와 공사가 앞장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한 결과, 직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이 크게 증가해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고에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사는 전동차 등 각종 시설물 수리, 차량기지 관리 등 작업위험이 따르는 모든 업무에 전문적인 공사 직원을 투입, 상황 발생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현재 전체 20개 역사 중 11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운영중이며, 기계담당 전문직원 9명이 직접 현장에서 수리조치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9개역에 대해서도 국·시비 130억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최근 스크린도어를 관리할 기계직과 전동차 기관사 등 15명을 신규채용했으며, 기관사 근무형태를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교번제에서 안정적인 교대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안전력 충원과 근무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거점 자치단체 선정

송정역에 정부 3.0 체험관

광주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 3.0 거점 자치단체 공모사업’에서 최근 거점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광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며, 이를 활용해 호남의 대표관문인 광주 송정역에 정부 3.0 체험·홍보관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부서 간, 기관 간, 민간과 마을 공동체 간, 가전제품 공동브랜드 등 광주형 협업시례를 발굴·전파하고 정부 3.0 생활화에도 노력한 점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부 3.0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올해 정부 3.0의 목표인 국민 생활화에도 적극 노력한 점도 한 몫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오카리나 연주회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훈)은 최근 나눔마당(하중현홀)에서 ‘환우 위한 사랑의 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빛고을예술봉사단(단장 황연식의 오카리나 연주팀이 방문, 10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연을 펼쳤다.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훈)은 최근 나눔마당(하중현홀)에서 ‘환우 위한 사랑의 공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빛고을예술봉사단(단장 황연식의 오카리나 연주팀이 방문, 100여 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연을 펼쳤다.

광주 중소기업들, 중동 수출길 활짝

두바이에 화장품 20만 달러 수출계약 등 성과

광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 본부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2개 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쳐 광동신부품, 무정전 전원장치, 테이블매트, 프랜즈방석, 의료·미용 등에서 새로운 판로를 만들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펼쳐 수출계약 20만달러, 수출MOU 1100만달러, 수출상담 1782만달러의 성과를 얻었다.

천연기능성화장품을 생산하는 ㈜라피네제이 브로섬 미들 이스트사와 리셀 5종 세트 2만5000개를 20만달러에 수출 계약했다. ㈜라피네제이는 지난 2015년 시장개척 활동에서 만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두바이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수량, 가격, 결제조건 등 합의를 통해 이번에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피부미용기기, 비만치료용품을 제조하는 지엔에스티(주)는 타사 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갈바나이온, 초음파, 원적외선, 자외선살균기능 등을 카이로 AAB(주)와 500만달러의 MOU를 체결했고, 두바이에서도 알누르 프리존사와 500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광동신부품(옵티프로젝트), 패치코드 생산하는 에프엔엔(주)은 카이로에서 뉴 커머셜 서비스사와 기술이전을 3년간 제휴하고 3년 후 카이로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아르

아흐마드 압둘 와헤브사와는 군부대와 통신관련 업체에 납품키로 하고 100만달러 MOU를 체결했다.

온적외선온열기를 생산하는 ㈜명신메디칼은 향후 기술협력담을 구성해 두바이를 다시 방문키로 했으며, 테이블매트, 다용도 글라스커버를 생산하는 성일노텍은 카이로와 두바이에서 만난 바이어에게 샘플과 견적의뢰를 받고, 이달 광주공장을 방문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과 KOTRA가 공조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직접고용 전환 300명 워크숍

광주시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 민선6기 들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직원 300여 명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노동 관계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6기로 나눠 이달부터 7월까지 지리산 KT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는 지난해 2월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광주시 본청의 청소·시설·주차·민원안내·청사방호 부문과 CC·

TV 관제요원이 참가한다.

워크숍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노동법 특강으로 올바른 노동지식과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화합사 역사 문화 탐방과 특강, 어울마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윤장현 시장은 워크숍 1기가 출발하는 2일 오전 출발 현장을 찾아 직접고용 전환 직원들에게 노사상생과 연대가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의 주체로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 노고를 치하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출발이다”며 “노사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

주민센터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이달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일부터 국제·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3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시민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경제 여건으로 전 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무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별도 비용 없이 세무 고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는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함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재능기부를 원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62명의 세무사를 모집, 관내 95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지정했다.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광주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해당 마을세무사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먼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진행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